악재 이겨낸 삼성그룹주, '수익률 탄력' 받았다

배당 착오·삼바 사태 마무리
삼성전자 주가 회복 땐 가속도
3분기부터 최대 실적 랠리 부활

〈삼성그룹주 펀드〉 (단위:%, 억원)

구분	1개월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수익률	0.13	3.19	7.64	33.16	30.19	5.64
설정액	-223	-5,033	-7,462	-17,669	-24,902	-34,478

/자료=에프앤가이드, 10일 기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등 잇단 악재를 이겨낸 삼성그룹주 펀드가 탄탄한 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호텔신라, 삼성SDI, 삼성전기 등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그룹주 전체를 휘감은 리스크를 완화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 65조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란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에 설정된 25개 삼성그룹주 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3.19%이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10.54%)에 비해 안정된 흐름이다.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은 0.13%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균 수익률(-2.0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도 삼성그룹주 펀드는 1.24% 수익률을 올렸다.

테마펀드 내에서도 삼성그룹주 펀드가 수익률 상위권에 올라 있다.

한국투자삼성그룹 펀드는 연초 이후 7.9%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삼성전자 편입 비중은 20.9%이다. IBK삼성그룹 펀드와 한국투자골드적립삼성그룹 펀드도 각각 8.1%, 8.0%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두 펀드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각각 22.1%, 21.9%이다. 동양모아드림 삼성그룹 펀드는 연초 이후 6.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그룹주 펀드는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한 데다 잇단 악재에 휘청거렸지만 다른 계열사 주식이 펀드 수익률을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삼성전기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7월(16만 6000원) 보다는 주가가 13만원대까지 빠졌지만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드 해빙 분위기를 타고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유커) 덕을 보고 있는 호텔신라와 전기차 배터리 호황을 등에 업은 삼성SDI도 꾸준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삼성그룹주 펀드의 수익률이 오를 때마다 투자자들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기준 올해 삼성그룹주 펀드에서는 5033억원이 빠져나갔는데 이 중 1084억원이 최근 3개월 사이 발을 뺐다. 최근 1개월 동안에도 설정액이 223억원 줄어드는 등 투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장주 삼성전자 실적 이슈가 펀드 수익률의 열쇠를 쥘 것으로 전망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춤했던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 랠리가 3분기부터 다시 시작됐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연구원은 "반도체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최선호주"라며 "2019년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협상력을 되찾아 업황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금융투자 최도연 연구원은 "올해 4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보다 3%가량 하락할 전망"이라며 "향후 D램 가격 하락 폭은 과거보다 둔화한 2~5% 정도로 원가 개선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낸드 가격 하락 폭도 4분기부터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낸드 업체들의 설비투자(CAPEX)가 크게 둔화했고 아이폰 출시 효과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낸드 재고는 올해 말에 정상 수준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려도 있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중장기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리스크는 감안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과 금리 상승 추세 등을 고려하면 내년 연간 실적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반도체 투자 속도 조절과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적 둔화 정도는 소폭에 그쳐 내년 영업이익은 6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2년 만기·연 5.15% 수익 폴라리스쉬핑 채권 판매

키움증권은 폴라리스쉬핑 채권을 세전 연 5.15%에 판매한다. 폴라리스쉬핑 채권은 신용등급 BBB+ 안정적(한국신용평가), 만기는 2020년 9월 20일(2년), 연 수익률은 세전 5.15%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장기계약에 기반한 양호한 사업안정성, 우수한 수익성과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 등을 바탕으로 위 등급을 책정했다. 해당 채권의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구명훈 키움증권 리테일금융팀장은 "저금리, 부동산 규제 등으로 투자 대안 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시중금리 +알파(α) 수익률(확정금리)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장점인 채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신한금융투자

달러RP 금리 높였다 하루만 맡겨도 1.4%

신한금융투자는 달러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인상해 단 하루만 맡겨도 세전 연1.4%(1주일 1.8%, 3개월 2.1%)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증권업계 최초로 외화RP 잔고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외화RP 시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원화채권을 담보로 편입한 달러RP 상품 출시 등 독점적 상품 공급을 통해 금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달러RP는 외화자금의 단기 운용수단으로, 수출입대금 등 외화결제가 잦은 법인들의 달러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도 해외투자, 자녀유학 등 다양한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며,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약정 기간에 따라 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서 737가구

우미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84~113㎡, 737가구를 분양한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은 84㎡A 460가구, 84㎡B 91가구, 101㎡ 174가구, 113㎡ 12가구다.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18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계약금(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제공한다.

하양지구는 약 48만여㎡로 5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지구 인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2021년 말 개통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입주 중)와 경산4일반산업단지(조성 중)가 호재다. /이규성 기자

〈10월 지방권역 주요 분양예정 단지 현황〉

위치	단지(사업)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건설사
부산 동구 좌천동 97번지(좌천2구역)	부산항 일동 미라주 더오션	546	513	59~84	일동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6-10(괴정2구역)	괴정 한신더휴	835	496	39~84	한신공영㈜
부산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455	455	52~84	대림산업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25-12(남한제지부지)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12,757	1,757	68~84	㈜동일, ㈜동일스위트
광주 동구 계림동 193(계림7구역)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	908	562	39~4	두산건설
경남 거제시 장평동 337(장평주공1단지)	거제 장평 꿈에그린	817	262	59~99	한화건설
전북 익산시 모현동 731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	338	337	84, 118	㈜제일건설
경북 경산시 하양지구 A1블록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655	655	84~98	호반건설
경북 경산시 중산동 628-49	힐스테이트 펜타힐즈	657	152	72~106	현대건설

*가구수, 전용면적 등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부동산인포

지방에 쏟아지는 아파트… 1만5043가구 분양

분양시장 향방 가늠 바로미터
지난해 2031가구 보다 7.4배↑

이달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9·13대책 이후 열리는 분양시장인 만큼 청약결과에 따라 지방 분양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청약에도 신중해지고 대구, 부산 등 전통적인 선호지역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중 지방권역에서 1만5043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31가구)의 7.4배, 2016년 동기(1만5972가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방 5개광역시는 9165가구로 지난해(1481가구)의 6.2배, 기타 지방도시는 5878가구로 지난해(550가구)의 10.7배 수준이다.

이달 중 지방권역에 분양하는 주요 분양단지로는 ㈜일동이 부산 동구 좌천동 좌천2구역에 '부산항 일동 미라주 더오션' 59~84㎡, 546가구 중 51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좌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역도 가깝다.

한신공영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2구역에 '괴정 한신더휴' 39~84㎡, 총 835가구 중 49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59㎡ 타입 중 69가구는 테라스하우스로 부산지하철 1호선 대티역을 이용할 수 있다.

㈜동일과 ㈜동일스위트가 대전 대덕구 옛 남한제지 부지에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 68~84㎡, 1757가구를 분양한다. 금강 조망이 가능하며, 신탄진 일대에서는 최초로 단지 내 수영장이 들어선다.

한화건설은 경남 거제시 장평동 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거제 장평 꿈에그린' 59~99㎡, 817가구 중 26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가깝고 거제대로, 거가대교를 통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경북 경산시 하양지구 A1블록에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84~98㎡, 655가구 를 분양한다. 경산지식산업지구와 인접해 있다. 향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이 개통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쌍용건설

英 왕립 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 최고상 수상

쌍용건설이 최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영국 왕립 재해예방기관(RoSPA) 안전보건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Gold Award(골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11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수상한 현장은 싱가포르에서 시공중인 '포레스트 우즈 콘도미니엄'이다. 이로써 쌍용건설은 11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RoSPA(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Accidents) Award는 영국 왕립 재해예방기관이 전세계 산업현장(전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시공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KSD, 등록발행 통해 87兆 조달… 전년比 2.8% 감소

한국예탁결제원은 3분기 등록발행 시스템을 통해 조달된 자금 규모가 8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18.0% 줄어든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채권 등록발행 규모가 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8% 줄었고, 양도성예금증서(CD)는 4조9000억원으로 26.9% 감소했다.

증권 종류별 등록발행 비중은 금융회사채(33.4%), 특수채(29.7%), 일반회사채(14.7%), 특수목적법인채(6.3%), CD(5.6%), 파생결합사채(4.7%), 국민주택채(4.0%), 지방채(0.7%), 지방공사채(0.7%)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금융회사채가 29조1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했고, 일반회사채는 12조7942억원으로 13.3% 늘었다.

반면 특수채는 25조8048억원으로 5.8% 감소했고, 특수목적법인채는 5조4644억원으로 15.4% 줄었다. CD 역시 4조 9413억원이 등록발행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삼정KPMG

해외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삼정KPMG는 오는 15일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본사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새롭게 투자·진출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와 베트남, 멕시코 3개국의 KPMG 파트너들과 현지에 파견돼 있는 삼정KPMG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가별 투자환경과 법인설립 절차, 세무·회계 관련 이슈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세계 인구규모 2위의 인도는 올해 GDP 성장률이 7.3%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에 기반한 성장으로 수출의존도가 낮아 글로벌 이슈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해 투자 지역으로 주목되고 있다. /김문호 기자